

## 6. 있는 모습 그대로 오거라!

### 요한복음 4장 5-15절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려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려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길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셈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려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 대화로의 초대 -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은 ‘갈급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염려가 찾아오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오셨지만 무엇 때문인지 철벽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9절.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여인이 이야기한 대로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혼자 물을 떠 드셔도 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방어에 대하여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여인을 ‘영적 대화’로 초청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르고 있는 무거운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직설적인 질문들을 통해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올려놓은 설교 중에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이라는 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얹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이 다음에 이 시는 세 행이 더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엄마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또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흔히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술겨 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조금은 낯선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억울했던 일, 그것을 어머니 앞에 일러바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억울했던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는 말 속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죄송함과 따뜻함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앞에 아이는 그냥 ‘아이’입니다.

그냥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억울했던 것,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일러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엄마 앞에선 아이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서 있는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어 볼 수 없겠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말입니다.

## 본질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갈증의 핵심은 ‘생수’의 유무가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여인의 대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에게 문제는 ‘도구’였던 것이죠.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인간들의 고뇌와 갈증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인듯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갈증’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던가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갈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진배없습니다.

켄 시게마츠는 [예수를 입는 시간]에서, “오늘날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도구’를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드려다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성공의 도구로 삼았는가?”

자식이 잘 키워서 성공시키면 인생의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품 나게 살도록 돈을 좀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죠,

아마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는 ‘인정중독’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관종’도 있죠. 실제의 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꾸준히 치장하고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 어떤 도구로 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물이 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말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유형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 포기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패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많이 노력하고 시도해 봤지만 스스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공로주의자’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패자’는 어찌 보면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이 끝나 버리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 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우리는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살아가던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했던 오류, 혹은 ‘간증’이라는 말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십일조를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던 빵집 주인이 결심을 하죠. 이렇게 망하느니 말씀대로 살 아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십일조를 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에 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렇게 살았더니 이전 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직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최대의 관심은 ‘정직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를 따라가는 세속적 관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정직한 십일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치필레’ (chick-fil-A)라는 치킨 전문 체인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 갔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체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목회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들었

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 문을 닫고도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2019년 ACSI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피자업계 라이벌인 파파존스와 피자헛은 80점으로 공동 2위, 도미노와 스타벅스가 79점 KFC가 78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칙필레의 이 같은 성공의 비결을 식품의 품질과 맛 뿐 아니라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까다로운 가맹점 운영 등이 꼽힌다.”

칠파리의 성공의 비결 (돈을 번 것)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참 큰 축복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맞는 평가가 아닐까요?

1946년 시작한 이 체인은 동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도 아주 잘 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반문화적인 패턴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경제적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다 포기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를 만드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라아가겠다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 갈증!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역사가 토마스 카일에 의하면 이 시점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문명도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생산성’ ‘성과’ ‘성공’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게 했다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어떤 성과를 내면서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데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이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나요?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려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갈망,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추구하던 '남자'들이 '갈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벼락같이 자신의 머리를 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것으로 인해 더욱 갈증이 심했던 것이구나!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에 갈증이 더해가니 말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13절이 이해가 됩니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을 위해 파 놓았고 지켜야 했던 우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을 피해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면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일 수 있으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므로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지 만 또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이죠.

이삭에게 찾아온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노력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욱 인생이 고달파 진 것 이죠. 이삭이 평안함을 얻은 것은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르호봇' (충분히 넓은 우물) 을 팔을 때입니다.

사실은 우물이 넓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라 바로 이 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녀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는 우물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누구도 성공으로 만족을 얻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요 생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경험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안식으로 얻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안식하리라는 생각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얻으면 그 하는 일들로 인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날을 구분하는 것이 ‘무기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 가장 뜨거운 한 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갈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물을 기르려고 가져왔던 ‘양동이’를 벼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7절)

여기서 ‘양동이’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가지고 다닌 ‘도구와 수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악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생기가 넘치는 모습은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나요? 이제 외부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어디에. . .**

본문 13-14절.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생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에서 그 생수를 길으려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기를 그릇이 없고, 때로는 우물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물을 길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말 성경을 가지고는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안에서 그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를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일 아니니 이야기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안내하게 된 계기는 고은아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였습니다.

분당에 선우은숙씨가 살고 있는데,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많이 어려울지도 모르니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문자를 보내고 ‘만나교회 담임목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절에만 다녔던 선우은숙씨가 “‘담임목사’라는데 ‘주지 목사’ 같은 거죠?”라고 물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BTD 영성훈련, 제자양육, 신약개관 공부로 이어졌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릇과 같았습니다.

지난 연말,

이제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신앙이 자라야겠다는 생각에 사역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참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보거나, 풍족해 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는 헤어진 지 꽤 오래된 전 남편 이영하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도 죽기 전에 나처럼 이런 기쁨과 감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교회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권면을 하다가 깜짝 놀란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이 많이 안정되었는데, 왜 쓸데없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 .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생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과 ‘하루’의 개념이 아주 신양적입니다.

‘안식일’은 일 한 후에 우리가 얻는 휴식이 아니라, 안식 한 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신양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들에는 이슬이 내리고, 나무와 꽃들이 한 뼘이나 자라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해한 퍼즐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해 보세요. 그냥 잠자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때는 움직이지 않던 뇌가 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통찰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을 자기 위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2절에 지혜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짜수 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려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아주 소중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모두 성과를 얻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안식하고 났더니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갈증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안식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